

# “나를 모르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 다시 듣는 조계종 원로의원 무진장 스님 법문

2005년 10월 동국대 정각원 법회

조계종 원로의원 무진장 스님의 생애는 '전법'과 '대중 법문'으로 귀결된다. 그만큼 불교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전달했기 때문이다. 동국대 건학 100주년을 200일 앞둔 2005년 10월 20일 당시 동국대총장인 후임회장장이었던 무진장 스님이 서울 동국대 정각원에서 대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문을 했다. 이제는 원적에 든 무진장 스님의 그리는 법문을 다시 듣는다. <편집자 주>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길 고평하게 살아가, 그 속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화엄경>에 보면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만나러 갈 때 제일먼저 만난 것이 문수보살입니다. 53번째 만난 보살이 보현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자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불교의 핵심이 자비와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재동자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가장 위대한 법문을 문수보살에게서 듣습니다. 왜 그 법문이 위대한가 하면,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거울속에 자신의 지나온 일생을 비춰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앉은 분들도 법사의 말을 듣지 말고 부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보세요. 그리고 부처님이라는 거울로 자신을 비춰 보기 바랍니다. 불교를 공부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불교는 믿는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의 종교며 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귀한

법문을 듣고 실천하면 확실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수행하는 것이지 어떤 절대적 존재인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부처님 앞에서 소원을 빌어서 행복해지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 창조적 인격을 만들자

동양에서 유교사상을 경험하지 않은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교의 핵심사상이 될 수 있는 '중용'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동양에서 불교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중도'를 모르는 이가 적지 않습니다. 불교의 중도는 연기를 말하지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 여기 앉은 분들 가운데서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연관 관계 속에 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를 모르고는 절대 행복해 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을 일러 드리겠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나 외에 모든



생전 무진장 스님의 법문 모습. 스님은 대중법문을 통해 전법활동을 펼쳤다. 현대의 장년층 불자 중 스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이가 드물 정도다.

이들을 공양하라'고 가르칩니다. 공양이란 불교식으로 나 말고 다른 이들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 진다는 겁니다. 나만 위해 살면 행복해 질 수 없습니다. 자 존심을 놓아버리라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 가슴에 있는 자존심이라는 것은 백년을 살아도 향기가 나지 않는 놈입니다. 그런 것에 집착하는 한 절대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혜와 인격을 갖추는 것을 '성불(成佛)'이라고 합니다.

성불이란 인격을 완성하는 거라 했는데 그럼, 인격의 완성엔 불교인들만이 독점 가능한 것인가? 모두들 대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스스로 교만하고 자

존심을 세우며,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은 부처님을 닮기 위해 불교를 믿는 겁니다. 내가 따로 있고 부처님이 따로 있어 내가 부처님을 따르면 부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해줄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창조적 인격을 만들어 부처님과 같은 이상적 인격을 갖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한 생각 바꾸는 것이 '혜' 그런데, 입으로만 진리를 말해서는 만겁

의 세월이 지나도 견성은 불가능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입으로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처음 이 법당 안으로 들어와 보니 어둡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흔히 세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법당 안을 환하게 밝힐까 논리적·학문적 연구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스님들은 이 깜깜한 방 안에서 스위치를 눌러 단박에 어둠을 밝히는 '선(禪)' 공부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신구의(身口意) 삼업으로 짓는 '사특한 지혜'를 가지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한 생각을 바꿀 때 라야만 가능하며, 그런 면에서 '선'이라는 것이 대단히 위대하다는 겁니다. 일평생 고

민해도 해결되지 않는데 손가락 하나로 스위치만 누르면 법당안이 환하게 밝아지는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선을 닦는데 어떤 자격이나 차별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 닦는 데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선'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오직 한 생각 바꾸는 데 그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일체의 반야지혜가 다 자기 자신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야지혜의 출발점은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있어요.

지금 여기 앉은 이들 모두 한분도 빠짐없이 다 부처입니다. 그런데 다들 자신이 중생이라는 생각에 집착해 있습니다. 부처님이 성도하고 가장 놀라웠던 것이 일체중생이 부처인데 왜 중생의 탈을 쓰고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주만물이 연기법에 의해 다 얽혀 있는데 오직 나밖에 모르는 중생심만 앞세워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 착각속에 살지 말고 자기 성찰을

오늘 제가 말한 모든 것이 비단 불교만의 진리는 아닙니다. 혹시, 오늘 법회 나오기 전에 나는 불교를 안 믿으니 법회 안 갔다 했던 분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 그 어느 누구도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어리석은 두꺼비처럼 뒤집어진 눈으로 '전도몽상(顛倒夢想)'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착각 속에 살지 말고 모두 스스로 돌이켜보고 살아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지 550호 지상불교>

### ■ 무진장 스님 행장

연도	세수	법랍	이력
1956년 3월 15일	25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동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1960년 3월 15일	29	5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1960년	29	5	범어사 불교전문강원에서 대교과 이수
1964년 2월	33	9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졸업
1967년 2월	36	12	동국대학교 대학원 수료
1968년 3월	37	13	태국 wat benchamabopit사에서 남방불교연구
1970년 9월	39	15	일본 경도불교대학 대학원에서 천태교학 연구
1971년 ~	40	16	조계사에서 주석하시며 40여년간 수행과 포교 정진
1975년	44	20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강사
1976년	45	21	동국대학교 법사 취임
1980년 1월	49	25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제2대 포교원장 취임
1981년 12월	50	26	대한 제3회 세계불교승가대회 한국대표(부단장) 참석
1987년 6월 3일	56	32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1989년 9월	58	34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제4대 포교원장 취임
1992년 8월	61	37	동산불교대학교 학장 취임
1996년	65	41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수상
2000년 9월 ~	69	45	동국대학교 대학원 겸임 교수
2005년 11월 25일	74	50	제3회 대원상 대상 수상
2007년 12월 11일	76	52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2008년 10월 31일	77	53	대한불교조계종 대종사 법계 품수
2010년 4월 14일	79	55	조계사 회주 추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상임위원 / 종교분과위원장

## ‘전법’ 평생 원력...조계종 포교 초석 다지신 스님

### 내가 만난 무진장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무진장 스님은 '대중 법문을 통한 전법'을 평생의 원력으로 살아왔다. 그만큼 스님이 전해주는 가르침을 곱씹고 추억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 스님을 그리워하는 사부대중의 목소리는 애절했다.

이번 무진장 스님의 장례에 호상을 맡은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은 "훌륭하신 무진장 스님은 그야말로 거지 같이 살다가 갔다. 거지 중에 상거지였다. 6년 동안 쓰레기 통 뒤지고 노숙하며 거지들과 함께 생활했다"며 "그렇게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신 참 비구였다. 온갖 역사의 흐름 속에 밥 굶고 쫓겨나고 화염병 맞고 똥바가지 쏟아지는 속에서 조계사를 지키셨다"고 회고했다.



법산 스님 수불 스님 홍윤식 교수 선진규 법사

이러 "스님의 역량은 무궁무진해 지혜의 해명을 받들어 왔다. 스님은 조계사를 떠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떠나지 않았다. 스님 빨리 옷 갈아 입고 다시 오시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무진장 스님을 "조계종 포교의 초석을 다지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수불 스님은 "반세기 이상을 서울 조계사에서 주석하시면서 영원한 포교

원장으로 살아오신 스님은 조계종 포교의 초석을 다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추모했다.

9월 9일 무진장 스님이 원적에 들기 5일 전에 만났다는 홍윤식 前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은 환한 웃음을 보여 오래 살 것이 라고 착각했다며 안타까워 했다. 홍 교수는 무진장 스님과 함께 일본 유학길에 올랐던 도반이기도 했다.

홍 교수는 "무진장 스님은 나눠주는 삶을 실천하신 분"이라며 "스님이 법문을 많이 해 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문을 하고 보시를 받으면 모두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나 역시 스님에게 돈을 받아 공부했다. 눈물겹고 슬퍼 감정을 억제할 수 없다"고 도반 스님의 원적을 슬퍼했다.

함께 포교사에 합격해 활동했던 선진규 봉화 정토원 원장은 무진장 스님이 부처와 보살의 길을 보여줬다고 추모했다.

선 원장은 "스님의 법문은 내용이 충실하며 힘 잡을 때가 없었고 연사의 품위가 느껴져 청중을 압도했으며 성향이 풍부해 청중을 포용할 수 있었다. 순간 순간 청중의 심리를 파악해 청중과 하나가 됐다"며 "스님은 포교사의 길은 험하다 순교의 길을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고 회고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천수천안보살처럼

#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 정책 제안 분야 -

수행 · 교육 · 포교 · 문화 · 복지 · 재정 · 인사 · 교구운영

불교의 오늘을 생각하는 종도들의 모임 <옛 무량회, 무차회, 백상도량>

boseon34@hanmail.net